

과학기술인의 사회적 지위와 인력 효율 상승 방안

“노과학자의 연구 계속하게 하자”

과학기술자의 사기 북돋아줘야

우리나라는 오랫동안의 전쟁과 빈곤의 시련을 겪어 왔으나 나름대로 이제 OECD에 가입하는 등 경제 선진국으로 성장했다.

그 배경에는 많은 사업가들의 눈물겨운 노력과 노동자들의 피와 땀이 주역을 했고, 남북이 대치하는 악조건 하에서 굳건히 나라를 지키며 혹은 목숨을 바치고 혹은 상이군인이 된 분들을 포함한 많은 젊은이들의 철통같은 조국방어로 안정된 국가로 상당기간 평화를 유지해온 것도 큰 협조를 했다.

그러나 보이지 않게 큰 공을 세운 성장의 뒷받침은 실험실에서 또는 공장에서 또는 강당에서 꾸준히 노력해온 과학기술자들, 특히 해외에서 수준 높은 학문과 기술을 배워와서 우리나라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연구원들, 교수들, 그리고 기술자들의 공이 가장 실제적 원동력이 되었다고 본다.

그런데 요즘 대덕 연구단지의 과학기술자 등은 자기 자식은 절대 과학기술자를 시키지 않겠다고 하는 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실제로 높은 두뇌집단들이 자연과학기술 분야 대신 인문·사회과학 쪽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대전 과학단지의 연구원들과 다른 사업체의 기술자·연구자들 심지어 대학의 자연과학 및 공학 교수들마저 사회적 존경과 후대를 받고 귀국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르게 맥이 빠져있고 외국으로 다시 빠져 나갈 기세에 있다.

과연 이런 상태로 우리나라가 계속 고속 성장과 첨단 기술을 개방하여 선진 사회의 일원으로 남을

수 있을까?

김이 빠진 연구소에서는 PBS(Project Base System)라는 족쇄에 얽매어 마지못해 일을 하고는 있으나, 도대체 신이 나지 않고, 스스로 이 사회의 개발 주역이라기보다는 인생 낙오자로 전락되어가는 느낌마저 들 정도인 것 같다. 이에 필자는 과학기술자들의 사회적 분위기 쇄신의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믿고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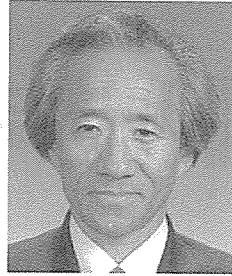
정년에 얽매이지 말고 연구 뒷받침을

과학자들이 정년을 앞두고 행정이나 사회적 명예직들이나 탐하게 하며, 본래 과학자의 위대한 축적된 노하우들을 버리는 것은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실이고 후대가 과학자들을 업신여기고, 다음 세대가 과학자의 길을 포기하는 부끄러운 사회 구조를 낳게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의 명예교수제도도 건강 정도에 따라 연구 및 강의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야지, 연구원 나이 61세, 교수 나이 65세 하고 나이별로 잘라 정년시켜 계속 연구와 강의마저 못하게 일률적으로 정해버리는 것은 개인에 따라, 능력의 정도에 따라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민주적 사회제도와는 너무 동떨어진 획일적 사회주의 방식이다.

선진국 정년제는 65세로 되어 있으나 원하면 얼마든지 오래도록 연구실을 보존하고 강의와 연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우리는 지금 OECD 국가인데, 왜 학자나 연구자들의 값진 두뇌를 그렇게 소홀히 버리는지 우수한 두뇌 한 사람이 길러

“정년에 앞뎠어 계속 연구와 강의를 못하게 일률적으로 정해버리는 것은 개인에 따라, 능력의 정도에 따라 대우를 받아야 하는 민주적 사회제도와는 너무 동떨어진 획일적인 사회주의 방식이다.”



鄭 玆 采
(경희대학교 화학과 교수)

지려면 엄청나게 큰 교육비와 자신들의 피나는 노력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또 개인에 따라 건강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은 부당하다.

나이든 과학자들의 축적된 노하우는 소중히 취급되고 젊은 과학지망생들에게 잘 전달되어 미래의 과학 두뇌가 수고를 덜 하고도 습득할 수 있는 석학들의 노하우 전수제가 이 시점에서 필요하다고 본다.

가령 석좌교수제가 과학자들에게도 많이 활용되어야 되고 학교 측에서 석좌교수를 채용하면 정부에서 그의 능력에 따라 석좌교수 월급과 연구비의 상당 부분을 인센티브형태로 보전해 주는 제도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 이는 나이든 건강한 석학 과학자들의 노하우를 폐기하지 않고 활용하는 길이고 과학자들의 우대 정책 및 사회적으로 과학인에 대한 예우로 자리잡을 것이고, 이러한 우수 노과학자의 우대 정책이 자리를 잡아가면 노년에 들어간 과학자들에게 희망과 의욕을 주어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그 후손들에게 명예와 자부심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고, 자식들이 아버지나 어머니의 학문 또는 가업을 잇는 전통이 계승될 수 있어 국가적 차원에서 커다란 교육적, 도덕적, 자산적 가치를 탄생시킬 것이다.

기초과학 분야 꾸준한 정부투자 바람직

요즘 뜨고 있는 과학계의 ET, BT, NT 분야의 경우 산업성이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커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정책적 배려를 받고 있다. 이런

분야는 그 산업화를 눈 앞에 두고 있어 산업계의 관심이 크므로 정부예산만을 투입하는 것 보다는 산업계의 투자와 연계해서 연구·개발하는 즉 산업계 투자가 있을 경우 그 10% 혹은 20%를 정부가 더 투자해 주는 인센티브제도가 도입됨이 필요하다.

산업화가 완성되면, 다음 뜨는 분야로 정부 투자는 옮겨가도록 하여, 전체 기초과학 분야는 항상 꾸준히 정부 투자가 계속되어 가야만 다시 다가오는 새로운 뜨는 분야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노과학자들의 노하우가 기초과학 교육과 연결되어 자라나는 세대에게 잘 전수될 수 있도록 정책이 수립되면 금상첨화가 될 것이다.

노후의 안정적 삶위한 사회적 뒷받침

실의에 빠져 허탈감마저 느끼고 있는 자연과학자들과 기술자들에게 나름대로 국가 발전을 위해 평생을 연구실과 실험실에서 헌신한 데 대한 국가적 인식과 그 공을 높이 산다는 의미에서 노년에 나름대로 건강 보전과 대화의 장 또는 건전한 새로운 의욕과 아이디어 충전을 위한 놀이터의 개념으로 대덕단지 근방과 서울 근교에 골프장과 대형 연습장을 만들어 장기근속 연구원과 교수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회원권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수평적·수직적 대화의 장을 만들고 나름대로의 사회적 신분 상승에 대한 조금이나마 위로와 자부심을 갖게 하고 또 연구 인력의 효율상승에 도움이 되리라고 믿고 국가의 정책적 배려를 촉구하는 바이다. ①7